

위원회 뉴스
—
NEWS

초·중·고 교원 연수 실시



지난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에 걸쳐 위원회가 운영한 초·중·고 교원 연수가 마무리됐다. ‘학교관리자를 위한 갈등해결과 언론 대응’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연수에는 20여 명의 전국 초·중·고 교원이 참가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 내 갈등의 조정인 내지 능동적 관리자로서 교원들의 효과적인 갈등 및 분쟁 관리 능력 향상에 그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연수 참가자들은 회복적 정의를 활용한 학생생활교육, 조정의 이론과 실습, 학교관련 보도와 언론피해의 구제 사례 등에 대한 교육내용을 수강했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 언론피해예방교육 실시



위원회는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 프레스센터 11층 위원회 강 의실에서 서울시 등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공무원의 언론분쟁해 결 역량 강화를 위해 위기 상황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기법, 언론환경 변화와 언론대응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지자체·공공기관 관련 언론조 정사례 분석과 ADR제도에 대한 강의로 구성돼 공공갈등 해결방법에 대한 교육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위원동정
—
COMMISSIONERS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활성화 토론회에서 주제발표

지성우 위원(서울제2중재부, 성균관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은 10월 2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최로 열린 ‘신규 ICT 서비스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및 이용활성화 대토론회’에서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법무부 중재법 개정안 공청회 지정토론자로 참석

강태훈 부장(서울제2중재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은 10월 14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법무부 주최로 열린 ‘중재법 및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개정 공청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법원 판결이 아닌 중재를 통한 효과적인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단국대 초빙교수 임용

오광건 위원(경기중재부, 전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단국대 교양교육대학 초빙교수로 임용됐다. 오 위원은 금년도 2학기부터 언론법제 과목을 맡아 학생들에게 관련 분야 이론과 함께 언론현장의 여러 갈등현황과 그 해결방법에 대해 실용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갈등해결 역량 심화과정 운영

위원회는 10월 27일과 29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2차 갈등 해결 역량강화 심화과정’을 운영했다. ‘갈등을 해소하는 대화기법’과 ‘전문적 갈등 개입을 위한 조정 전략’ 두 과목으로 개설된 이번 연수 과정은 실제 갈등사례를 바탕으로 갈등상황을 이해하는 대화요소 및 갈등 유형별 접근방법, 조정자의 유의사항 등 실질적인 갈등해결을 위한 전문조정기법에 대해 집중 교육했다.